**KG 모빌리티, 2023년 상반기 7년 만에 흑자 전환**

* 지난 1분기 최대 매출에 이어 상반기 매출 2조원 돌파로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 기록
* 판매 증가세와 원가 구조 개선 등 효과로 2분기 연속 흑자, 7년만에 상반기 흑자 달성
* 제품 라인업 확대 통해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판매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할 것

**[2023년 8월 2일]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http://www.smotor.com))는 지난 상반기에 ▲판매 6만 5,145대 ▲매출 2조 904억 원 ▲영업이익 282억 원 ▲당기순이익 34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토레스와 함께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판매 확대와 실내 디자인과 상품성 등을 큰 폭으로 개선한 제품 개선 모델 출시로 2분기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에 이은 상반기 매출 2조원 돌파는 KG 모빌리티 역대 최대 매출이며, 상반기 흑자 전환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또한, 상반기 판매는 내수 38,969대, 수출 26,176대 등 총 65,145대로 지난 2019년 상반기(70,277대)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했다.

특히 토레스가 내수 판매 증가와 함께 유럽시장으로 선적을 시작하며 내수와 수출 포함 28,580대가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손익 역시 판매 증가세와 함께 원가구조 개선과 내부체질 개선 등이 효과를 보이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282억 원, 당기순이익 34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KG 모빌리티는 이러한 판매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상품성 등을 큰 폭으로 개선한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그리고 더 뉴 티볼리 출시에 이어 중형급 전기 SUV인 토레스 EVX를 9월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 개척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11일~13일(현지시각)에는 토레스 유럽시장 론칭에 곽재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현지 판매 대리점과 콘퍼런스를 갖고 해외시장에서의 판매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연이어 16일~20일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CIS 지역을 대상으로 토레스 시승 행사를 가졌다.

KG 모빌리티는 “토레스와 상품 개선 모델 출시 등 제품 라인업 확대로 판매가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과 함께 2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토레스 EVX의 성공적 론칭은 물론 신흥 시장 개척과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판매 확대와 함께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클립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미디어 문의**

KG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

▶ 곽용섭 실장 (02-3469-2050 / 010-3583-9416  / yongsub.kwak@smotor.com)

▶ 차기웅 팀장 (02-3469-2052 / 010-8998-3936 / kiwoong.cha@smotor.com)

▶ 최진웅 부장 (02-3469-2051 / 010-4570-0751 / jinwoung.choi@smotor.com)

▶(fax) 02-3469-2282